

광주FC, 모든 것 쏟아붓는다

16일 고양 원정 '마지막 승부' 이기면 자력 4강

선수들 "체력·정신력 올인 후회 없는 경기 할 것"



"자신 스스로에게 고마울 정도로 모든 것을 쏟아붓자고 했다. 모두가 최선을 다했다."

지난 8일 부천 FC와의 경기 끝난 뒤 광주 FC의 공격수 김호남은 동료들에게 승리의 공을 돌렸다. 4강 희망이 사라질 수 있었던 이날 경기에서 김호남은 1-0으로 앞선 후반 36분 파비오의 골을 도우며 2-0 승리에 췌기를 박았다. 안산전 2-0에서 충격의 2-3 역전패를 당했던 광주는 이 승리로 가까스로 4강행 불씨를 살렸다.

경기 전 선수들은 '올인'을 다짐했다.

김호남은 "선수들끼리 실력과 경기력을 떠나서 가지고 있는 체력과 모든 것을 쏟아붓자고 했다. 내 자신에게 고마울 정도로 하자고 마음 먹었다. 교체로 들어온 선수는 물론 벤치에서 있던 선수들까지 정신과 체력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이뤄낸 승리"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김호남의 도움이 더 빛났던 것은 부상을 이겨낸 투혼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호남은 안구뼈에 실금이 가 있는 상태다. 하지만 스피드가 강점인 김호남은 멈추지 않았다. 김호남은 통증에도 불구하고 풀타임으로 그라운드를 뛰었다.

광주의 장단멤버로 팀의 영광의 순간과 좌절의 아픔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 그에게 한 경기 한 경기는 절실하다. 부상은 김호남을

막지는 못했다.

김호남은 "안구뼈에 금이 가있는 상태. 경고 누적 빼고 경기에 다 나갔는데 부상 때문에 경기를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다. 지금 이렇게 시즌이 끝나 나중에 끝나 나에게는 부상은 의미가 없다.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언급했다.

부상 투혼으로 살린 4강행 불씨. 김호남과 광주 선수들에게는 마지막 한 경기가 남았다.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하는 광주의 2014 시즌 최종전이 오는 16일 오후 2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고양 HiFC와의 36라운드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광주는 자력으로 4강행을 확정짓는다. 무승부나 패배가 나올 경우에는 다른 팀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실업음 승부다.

김호남은 "시즌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경기는 없지만 36라운드 경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중요한 경기다. 체력과 정신력을 다 쏟아부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투혼을 예고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 제종현·이종민·파비오, 35R 베스트 11



파비오 제종현 이종민

광주 FC의 제종현·이종민·파비오가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발표한 K리그 챌린지 35라운드 베스트 11에 3명의 광주 선수가 이름을 올렸다.

선방 퍼레이드로 팀의 승리를 지킨 수문장 제종현은 "빠른 판단과 정확한 클리어로 팀의 무실점 승리를 이끌었다"는 호평 속에 오랜만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디에고의 선제골을 도운 이종민은 "위협적인 오버래핑과 함께 날카로운 크로스로 팀의

선제골을 도왔다"는 평가와 함께 베스트 11이 됐다.

1-0의 리드 상황에서 췌기골을 넣은 파비오도 영광의 얼굴이 됐다. 선정위원회는 "분위기를 바꾼 그의 교체 투입, 예리한 위치 선정과 마무리로 추가 골을 터뜨렸다"고 파비오의 활약을 언급했다.

한편 광주는 지난 부천과의 35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브라질 콤비' 디에고와 파비오의 연속골로 2-0 승리를 거두며 4위로 올라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넥센, MVP·신인왕 석권할까

투표 완료... 18일 발표

올 시즌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최고의 선수와 신인선수가 18일 발표된다.

2014 프로야구 최우수선수(MVP), 최우수신인선수 선정 및 부문별 시상식이 18일 오후 2시 The-K 호텔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MVP는 넥센의 집안 싸움 양상이다. 2년 연속 MVP 트로피를 들어올렸던 박병호를 비롯해 200안타를 넘어서서 서건창, 정규시즌 물오른 방망이를 선보인 유격수 강정호 그리고 20승 고지를 밟은 밴헤켄 등 4명의 넥센 선수가

MVP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 투수 밴헤켄도 MVP 후보로 당당히 명함을 내밀었다.

최우수신인 선수 자리를 놓고는 조상우(넥센), 박해민(삼성), 박민우(NC) 등 세 명의 선수가 각축을 벌였다.

투표는 이미 완료됐다. KBO와 한국야구기자회 소속 종합 일간지, 스포츠 전문지, 방송사 간사로 구성된 후보 선정위원회는 지난달 18일 MVP와 최우수신인선수 후보를 선정했고, 19일 프로야구 취재기자단의 투표를 이뤄졌다. 결과는 시상식 당일 현장에서 발표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내년 캐치프레이즈 공모

새로 시작하는 KIA 타이거즈가 2015시즌 캐치프레이즈를 공모한다.

캐치프레이즈에는 'V11' 달성을 위한 KIA의 새 각오와 혁신 의지, 팬과 함께 승리를 향해 가는 '호랑이 군단'의 용맹함과 진취적 기상이 담겨야 한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는 14일부터 내달 7일까지 구단 홈페이지(http://www.tigers.co.kr) 팝업창을 통해 이뤄진다. 선정작은 12월 22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최종 선정작 1명에게는 10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가작 5명에게는 10만원 상당의 구단 상품이 증정된다. /김여울기자 wool@



광주 FC가 오는 16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고양 Hi FC와 대결을 갖고 2014 시즌 대장정을 마무리 한다. 4강 플레이오프를 위해 공격수 김호남이 부상투혼에 나선다. <광주 FC 제공>

www.yh-bus.com

예향 고속관광과 함께 떠나요!

힐링여행

회사 출 · 퇴근 버스임대 - 여행지 사전예약
단체여행 버스대절 - 최신버스 저렴한 가격
최상의 서비스 및 예약자 선물증정

예향 예향고속관광 YEHYANG TOUR

고객상담 및 예약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805(혹석사거리)
TEL.062.944.5775 FAX.062.944.5995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안트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